

LG화학, 정보소재 착실히 잘 크다!

2004년 1Q 정보·전자소재 매출비중 15% ... 2004년 20% 달성할 듯

LG화학이 정보·전자소재 사업부문의 매출액 비중을 20%로 꾸준히 끌어올리며 주력사업으로 착실히 성장하고 있어 미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2004년 1/4분기 LG화학의 매출액은 전년동기 1조3715억원에 비해 17.3% 증가한 1조6091억원을 기록했으며 사업부문별로 석유화학은 15.9% 증가한 9366억원, 산업재는 4% 증가한 4917억원, 정보·전자소재는 68% 증가한 2547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영업이익도 석유화학부문을 제외한 산업재, 정보·전자소재에서는 전년동기대비 소폭 감소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부문에서의 영업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8.7% 증가한 1101억원을 기록한데 힘입어 전체적으로 153억원 증가했다.

LG화학의 경영실적(2004.1Q)

(단위: 억원)

구 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 이익	순이익
	03 1Q	03	04 1Q	04(E)	03 1Q	03	04 1Q	04(E)		
석유화학	8,080	32,613	9,366	32,091	855	2,281	1,101	2,653	2,097	1,528
산업재	4,733	19,600	4,917	21,104	503	1,634	400	2,004		
정보전자	1,518	6,991	2,547	12,807	210	962	190	1,276		
합 계	13,715	56,725	16,091	62,689	1,538	4,794	1,691	5,915		

석유화학부문의 영업이익이 대폭 증가한 것은 PVC 가격이 2003년 1/4분기 톤당 672달러에서 2004년 1/4분기에는 841달러로 급등하는 등 원유가격 강세로 원료가격의 상승이 있었으나 수요의 증가가 커 판매가격 인상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산업재 부문에서는 수출증가율이 23%로 늘어 매출액은 증가했으나 가격인상은 4%에 불과해 원료가격 인상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보·전자소재 부문은 Battery 제품의 신규증설에 따른 감가상각기간이 12년에서 6년으로 바뀌어 2003년 1/4분기 210억원의 영업이익에서 190억원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매출액은 1518억원에서 2547억원으로 68% 증가해 폭발적인 신장률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원료가격, 판매가격에 따른 Spread상의 감소가 아닌 감가상각기간 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해 2/4분기 이후 큰 폭의 영업이익 증가가 예상된다.

2/4분기 정보·전자소재 부문은 품목에 따라 시황이 엇갈릴 전망인데 Battery 분야는 노트북 PC 수요의 꾸준한 증가로 매출은 상승하나 원료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FPD용 Panel 제품은 매출증가와 이익 증가가 꾸준히 지속될 전망이다.

LG화학은 2004년 정보·전자소재 영업이익을 2003년 962억원에서 32.6% 증가한 1276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FPD(Flat Panel Display) 분야 특히, LCD TV 등 대형 제품시장의 확대와 LCD Panel 제조기업들의 확장에 따른 수요증가가 예상돼 판매가격 하락에 대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전자소재부문의 2004년 매출액은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1조2807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며 영업이익은 전체의 21.5%에 해당하는 1276억원을 기록해 주력사업부문으로 거듭나고 있다. <한기석 기자>

<화학저널 2004/05/03>